

【논 문】

근대 중국 동북지역 한인 이주와 항일투쟁의 기억·기념

김 정 현*

┃ 차 례 ┃

1. 머리말
2. 중국 동북 한인이주의 증가와 민족문제의 이중성
3. 1910~20년대 동북지역 항일독립운동과 유적지 보존
4. 1930년대 이후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유적과 기억·기념
5. 맺음말

국문초록

만주 한인들의 항일투쟁은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이 개척한 조선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 동북이주 한인들 조직한 항일운동단체들을 기반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이 승리할 수 있었으며, 동북지역 한인 항일부대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7년 7·7사변 이후에도 많은 공훈을 세웠다. 본고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의 중국동북 이주의 특징과 민족문제의 이중성 등 한인 공동체가 중국내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징에 대해 최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식민지기 한인의 동북지역 항일투쟁 관련 유적지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한인 디아스포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의 삶과 항일유적지 보존과 기념 상황 등을 현재까지 출간된 중국동북지역 항일투쟁 연구조사와 답사기 등을 기반으로 재검토하였다. 현재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운동에 대한 기억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향후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가 공동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동안 근대 중국동북으로의 한인이주 연구가 재조명되어 왔지만, 조선족 공동체의 민족자부심과 자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족 역사교육에서 항일투쟁의 위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역사유적지를 올바르게 기념할 필요가 있다. 이주 한인의 삶과 항일투쟁 관련 역사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조선족의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중국 내에서의 역사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동북, 만주 한인이주, 항일투쟁, 기억 · 기념

1. 머리말

만주사변(1931.9.18) 발발 80주년인 2011년 만주사변과 만주국 관련 다양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만주의 역사를 다룬 연구서가 최근 3년간 10권이 넘게 출간되는 등 만주지역과 한인의 역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¹⁾ 만주²⁾의 역사와 중국 동북지역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학술교류가 가능해지면서 그 기반이 호전되기 시작하였고, 이주의 원인과 시기별 특징에 대한 연구와 항일투쟁 유적지 조사 등이 더해지면서 이주 한인의 삶과 항일투쟁의 기억이 재조명되어 왔다. 특히 중국동북 이주 한인들이 20세기 동아시아의 디아스포라³⁾로 부각되면서 한인

1)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야미무로 신이치 저·윤대석 역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박영희, 2008, 『만주를 가다』, 삶이 보이는 창; 한석정·노기식 공저,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등.

2)滿洲란 지리적 개념은 오늘날의 흑룡강·길림·요녕 3성을 포괄하는 중국 동북지구를 지칭하며 중국인들은 ‘동북’·‘동북3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고는 현재의 동북3성을 지칭할 때는 ‘중국동북’으로 그것이 만주라고 불렀던 역사 용어로 사용될 때는 ‘만주’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유산이라는 관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인 이주를 디아스포라로 접근하기도 한다.⁴⁾

근대 중국 동북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한 한인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월경하여 민족공동체를 이루었고, 1910년 조선이 일본에게 강점되자 수많은 한인들이 정치적 박해를 피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이유로 만주로 이주해 갔다. 이들은 중국 동북지역을 조국 해방의 인적·물적 기지로 활용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항일투쟁뿐 아니라 일본의 만주 이민정책에 의해 한반도와 왕래를 계속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조선족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된 이주 한인들⁵⁾ 만주에서 항일투쟁과 신중국 건설에 크게 기여한 대가로 중국 공민의 자격을 부여받아 연변지역에 민족자치주⁶⁾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동화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 정체

3) 디아스포라는 민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으로 번역되는데, 단지 한 민족집단 성원들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분산한 동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디아스포라 연구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망명·난민·민족공동체·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적응·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102쪽). 중국 조선족은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며, 모국 국민과 무관한 100%의 조선족일 뿐이라는 관점(黃有福, 2009, 「중국조선족의 문화공동체」, 해외한민족연구소, 『한반도 제3의 기회』, 한국화산문화사)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민족이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라는 점만 강조한 반면, 혈연·역사적 기억과 문화·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한 편면적인 논리라고 비판받는다. 중국 조선족은 ‘跨境민족’의 후예들로서, 근대적 디아스포라라 할 수 있다(김호웅, 2010,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29, 5~9쪽).

4)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197쪽.

5) 근대 19세기 중엽이후 식민지기 만주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조선인)은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移住民族’ ‘遷入民族’ 또는 ‘跨境民族’ ‘跨界民族’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조선족’이라는 용어는 중공당의 민족정책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광복 전에 만주에 이주하여 거주했던 한인/조선인과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 하지만 조선족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만주국’ 시기의 재민/조선인을 ‘조선족’의 범주에서 다루기도 한다(최봉룡,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 2집, 97쪽).

6) 1952년 9월 3일 길림성 연변조선민족 자치주가 수립되었고, 1955년 4월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개명하였다. 연변자치주는 그 산하에 연결시 연결현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안도현이 포괄되었고, 전체 인구 85만 4천여 명 중 조선족은 53만여 명으로 62%를 점하였다.

성을 유지해 왔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과 한국과의 교류 증대로 말미암아 외부로의 이동이 증대되면서 조선족 집거구가 약화되고 있다.⁷⁾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사회에서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해 왔으나, 이주 세대가 길어지면서 민족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민족정체성도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일 우려가 있다.⁸⁾

본고는 조선족 민족공동체의 올바른 정체성 수립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먼저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의 중국동북 이주의 특징과 민족문제의 이중성 등 한인 공동체가 중국내에서 형성된 역사적 특징에 대해, 최근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식민지기 한인의 항일투쟁 유적지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기억은 과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것이고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집단의 관심과 태도는 집단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다.⁹⁾ 근대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민은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분쟁 속에서 양

-
- 7) 동북3성 거주 조선족 인구는 1953년 1,103,000명으로 중국내 조선족 인구의 99.2%를 차지하였고,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865,000명으로 전체 조선족 인구의 97.1%를 차지하였다. 특히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인구는 821,000명으로 중국내 조선족 인구의 42.7%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중국 진출과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조선족 노동력이 중국의 타 지역과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1996년부터 절대 다수가 줄어들어, 조선족 비율이 2000년 말 전체 인구의 38%, 2005년 말에는 33%로 대폭 낮아졌다. 이로 인해 ‘소수민족 비율이 최소한 30%를 넘어야 한다’는 주 설치 규정에 따라 연변자치주가 해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 위기』, 『뉴데일리』, 2007년 2월 7일자). 게다가 2008년 3월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연길·용정·도문 3개 시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延龍圖 당위원회 설립을 결정하였다는 발표를 보도한 국내 한 일간지는, 3개 시 통합 후 한족들을 빠르게 이주시켜 궁극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폐지시킬지 모른다는 현지 일부 조선족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였다(『중(中) 연변 조선족 자치주’ 3개 시(市) 통합 추진』, 『조선일보』, 2008년 3월 19일자).
- 8)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이주민은 처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였고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하였다. 20세기 중엽에 들어서 대규모 이주가 그치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정착을 하게 된 조선족은 중국사회에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화 문화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이주 세대가 1,2세에서 3,4세로 넘어가면서 한인의 가치 정향성은 모국 중심에서 거주국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주 3,4세에게 민족문화는 지켜져야 할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이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 동족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주국의 타민족·인종과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3,4세는 민족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민족정체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윤인진, 2003, 앞의 논문, 118~138쪽).
- 9) 안병직, 2007,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회, 『역사학보』193, 281~282쪽.

측으로부터 국적·토지·교육문제 등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생존해왔으며, 국권회복을 위해 중국의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도 있었다. 현재 중국동북 조선족 공동체는 항일투쟁을 어떻게 기억·기념하고 있고 항일투쟁의 위상이 중국내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조선족 공동체와 남북한의 동북 항일투쟁에 대한 기억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현재까지 출간된 중국동북지역 항일투쟁 연구조사와 답사기 등을 기반으로 재조명 해보고자 한다.

2. 중국 동북 한인 이주의 증가와 민족문제의 이중성

1) 한인 이주의 증가와 원인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대해서는 토착민족설, 元末明初설, 明末清初설 등이 있지만,¹⁰⁾ 대체로 19세기 중엽이후 이주한 한인들부터 오늘날 중국 조선족 민족공동체와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있다.¹¹⁾ 19세기 중반이후 한인의 계속된 이주와 정착은 1880년대 청조의 봉금정책을 해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세기 후반 만

10) 토착민족설은 중국 조선족은 고조선·고구려·발해를 거쳐 遼·金·元·明·淸의 오랜 세월동안 이 땅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왔다는 주장이다. 원명시기설은 명나라 시기에 이미 습관적인 국경이 있었고, 국경이 있는 후에 이주한 사람들은 조선족으로 보아야 하며, 명대 이주는 원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조선족 이주 시작을 원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고영일, 1986, 『中國朝鮮史民族史研究』, 연변교육출판사).

11) 19세기 중엽설은 현재 중국 조선족의 대다수가 1860년 이후 이주한 조선인 후예라고 본다. 토착민족설의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유민은 혈통상 지금의 조선족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고, 元末明初의 이주민도 정확한 자료가 없고 그 후손들과 지금의 조선족들과 연계점을 찾을 수 없다. 1619년 명청전쟁 때 명나라를 지원하기 위해 강홍립이 1만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병했다 잔류한 조선인과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 때 납치 또는 볼모로 끌려간 조선인도 상당수 있지만, 명말청초의 이주는 漢族이나 滿族의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주민들의 정착을 기반으로 한 집거구 및 민족공동체 형성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조선족 공동체의 형성과는 연계가 없다고 본다(김태국, 1996,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 『동북아연구』2-1, 조선대, 129~132쪽).

주 이주민이 급증하여 이 지역에서 조선인 사회가 형성되었다.¹²⁾ 19세기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현 조선족의 1세대이자 만주 땅에 법씨를 뿌리고 수전 농법을 성공시켜 삶의 터전을 일군 개간의 주역이었고, 그들이 일군 이 지역은 일제침략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구자들의 산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조선인의 만주 이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³⁾

먼저 19세기 중반 이후의 이주가 그 전시기와 달라진 특징은 범월문제를 다룬 전해중(1993)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19세기 중엽 이전에는 월경 동기가 채삼·수렵·벌목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으나, 이후 농민의 계획적인 이주가 많았다는 점을 밝혔다. 19세기 중반 이래 대규모로 한인의

12) 청조는 道光年間(1821~1850) 동북의 봉금지책을 엄격히 실시하였으나, 咸豐年間(1851~1861)부터 光緒초까지, 봉금지책이 해이해져 조선 유민들의 동북거주를 묵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에서 1860년대의 수재·한재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월강죄’를 무릅쓰고 백성들이 떠나서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선인과 漢族들이 연변의 봉금지대에 이미 정착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청조는 1875년 ‘盛京東邊간광지개간조례’에 의해 發祥地인 압록강 이북지대에 대한 봉금을 해제하였다. 청조는 변경을 침범하는 러시아 세력을 방어하고 고갈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연변의 남황금산위창을 개방하였고, 1883년 ‘이민실변’ 정책을 실시하고 봉천과 조선, 길림과 조선간의 지방 무역협정(吉林朝鮮商民貿易地方章程)을 체결하여 200여 년 지속하여 실시하던 봉금지책을 폐지하고, 1885년부터 1906년까지 조선유민들의 개간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연변일대에서 두만강 이북 길이 7백여리 너비 50리 되는 지역을 조선 유민들의 개간구역으로 결정 한 것이다(고영일, 2002, 『中國朝鮮史民族史研究』, 학연문화사, 175쪽). 이렇게 설치된 조선족 개간구는 이후 연변에 조선족의 집거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지어놓았다(박창욱, 1991, 『조선족의 중국 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184쪽).

13) 이훈구, 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 현규환, 1967, 『한국유이민사』(상. 하) 어문각; 고승제, 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임계순, 1987, 『만주·연해주 동포사회』, 『한민족 독립운동사』2, 국사편찬위원회; 김택중, 1985, 『韓民移動東北之研究: 1860~1910』,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석사논문; 전해중·이승욱·김한규, 1992, 『연변의 韓族에 대한 기초연구』, 『동아연구』24; 전해중, 1993, 『한족의 만주(특히 간도)이주에 대하여 - 19세기 중엽까지의 역사와 연구의 문제점』, 『동아연구』26; 전해중, 1993, 『연변 한족의 정착과정과 초기 한인사회 - 19세기말에서 1920년대 초까지의 이민과 농업경영』,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춘선, 1998, 『조선후기 조선인의 만주로의 犯越과정과 정착과정』, 『백산학보』51; 김춘선, 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이민실변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 북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제8집; 홍종필, 1993, 『만주 조선인 이민수전 개척소고』, 『명지사론』5; 김영, 2004,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김원석, 1992, 『中國朝鮮族의 遷入史에 대한 研究』, 『동아연구』12; 依田憲家, 1976, 『滿洲における朝鮮人移民』, 滿洲移民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移民』, 東京: 龍溪書舍 등.

동북지역 이주가 계속된 원인이 벼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김영(2004)에 의해 이미 고증이 된 바 있다. 만주에서의 벼농사는 간도보다 이른 시기부터 압록강 상류의 요녕성 지역에 거주한 조선인에 의해 1875년 通化일대 上甸子에서 벼 재배가 성공함으로써 시작되었다.¹⁴⁾

서간도 조선인 이민자들은 ‘封禁지대’를 중심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았지만, 한인의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청정부는 이들에 대해 토지소유권 박탈과 薙髮易服·귀화입적 등 강압적 동화정책을 취하였다. 일부이긴 하지만 양정학당 창시자인 이동춘과 같은 민족계몽운동의 선구자들은 반일구국의 책략으로 치발역복을 받아들이고, 간도 땅을 반일독립운동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귀화입적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주 한인들은 민족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귀화입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이민은 한족이 갖지 못한 수전 경작기술을 갖고 한족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에 조선인 이민은 계속 늘어갔다.¹⁵⁾ 당시 중국동북으로 이주한 한인 농민들에 의해 장춘·봉천·무순·안동·개원·송수·해성·영구·해림 부근과 간도 등 많은 지역에서 수전이 발달하였다.¹⁶⁾

최근에는 한인 이주의 새로운 원인으로 『정감록』의 진인출현설(眞人出現說)이 등장하였다.¹⁷⁾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상적 혹은 종교적 이상향을 추구해 만주로 이주한 경우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당시 조선은 삼정문란이

14) 김영, 2009, 『중국 요녕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 1875~1931』 『한국학연구』21집,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6쪽.

15) 홍중필, 1993, 『만주(중국동북지방) 조선인 이민의 전개과정 소고』 『명지사론』, 71~72쪽.

16) 이들은 1900년경 옥도하물을 끌어들이어 용정 대교동 일대의 논을 일구고 용정촌 부근 토성보 수전을 개척하여 연결현 용지향 대교동 부근에서 벼농사에 성공하였다. 이들이 1906년 6월 길이 1,308m에 달하는 인수로를 파서 7정보의 논을 관개한 것은, 간도 최초의 수리 관개시설로 현재도 남아 있다. 1910년대 해림지방 조선인 농민의 수전경영도 호황을 맞아 ‘해림쌀’이라 할 정도로 명성을 날리었고, 1926년 간도에는 이미 50여개의 수리 시설이 있었으며 수전관개 면적은 3,967헥타르에 달하였다(중국 연변역사학회 기획·주성화 엮음·김춘선 감수, 2009, 『중국조선인 이주 사진첩 1』, 한국학술정보, 100~102쪽).

17) 정성미, 2011, 『19세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극에 달해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고,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와해되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진인출현설이나 미루세계의 출현을 갈구하는 등의 새로운 이상세계를 추구하게 되었고, 서북지방에서는 이런 정감록 사상을 바탕으로 만주에 이상향이 있다고 믿고, 진인과 이상향을 찾아 이주했다는 것이다.

19세기 중엽이후 이주는 대체로 1880년대 봉금해제 이후 1910년까지, 1910년에서 1930년, 1930년대에서 1945년까지의 3시기로 다시 구분된다.¹⁸⁾ 한편 김춘선은 한인사회 형성의 기점을 봉금해제 시점으로 보지 않고, 구성원들이 의식적으로 한인공동체를 만들려 했다는 점에서 1910년의 墾民교육회와 그 후신인 1913년의 墾民會의 성립으로 삼고 있다.¹⁹⁾ 1910년대 비로소 한인사회가 형성된다고 보는 김춘선(1998)의 주장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논쟁거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을 전후하여 오늘날 중국 조선족의 조부모나 중조부모의 대부분이 한반도로부터 이주해 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기 이주자가 급증하였다. 1910년 이후 항일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한 애국지사 및 의병출신들의 정치이민까지 더하여, 1910년 8만이었던 간도 인구는 1925년 34만 명이 더 늘어나 43만 명으로 증가, 이주민이 총인구의 80%를 차지하였다.²⁰⁾ 이러한 증가는

18) 시기구분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김원석(1992)은 이주의 상한을 1840년대로 보았고 임계순은 1905년부터라고 보았다. 임계순은 1882~1910년은 중국지방관헌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미 이주한 조선인을 축출하지 않았을 뿐, 개간을 위해 조선으로부터 이민을 적극 장려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1905년 조선이 외교권을 상실한 ‘을사보호조약’으로 의병이나 애국지사들이 자의로 이주하였음을 중시하여, 1860~1904의 청정부 묵인 아래 조선인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 잠입한 시기, 1905~1930의 자유이민 시기, 1931~1945의 강제 집단이민 시기로 구분하였다(임계순, 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50쪽).

19) 간민교육회는 1910년 3월 건립되었다. 1909년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보통학교와 보조사당 등을 설립하여 친일교육을 실시하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원치 않는 조선인들이 중국국적에 가입하여 중국법률의 보호 밑에서 자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간도를 반일민족운동의 기지로 건설하려 한 것이다. 간민교육회는 중국지방정부의 인가 하에서 조선족들을 위한 실제적인 일들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김철수, 2001, 『연변항일 사적지 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23, 128쪽).

20) 鶴嶋雪嶺, 1997, 『中國朝鮮族の研究』, 大阪: 關西大學出版社, 169쪽.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 자유이민의 형태로 계속되었다.

1932년 만주국을 수립한 일제는 集團·集畵·分散·自由 이민의 형식으로 일본인과 더불어 조선인을 만주에 대량으로 이주시켰다. 일제는 당시 비적이 횡행하던 만주지역의 치안유지와 자작농 양성을 위해 조선인 집단부락과 안전농촌을 계획하였다. 이는 조선 남부의 과잉인구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제한하는 동시에, 만주지역의 수전개발 및 항일세력 대응차원에서, 그리고 만주를 대소 방어 진지구축과 대륙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1933년 3월 간도 연길현 춘양항에 첫 번째 집단부락인 북하마탕 100가구가 건립되고 4월에 8개 집단부락이 더 건설되어 855명의 조선 이주민을 수용하였다. 1930년대 조선에서는 개척이민과 일제의 정책이민이 겹쳐서 진행되면서 대대적인 ‘만주행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僞만주국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6년 8월 ‘재만조선인지도요강’을 제정, 1937년부터 조선 이민을 간도와 동변도 일대의 23개 현에 집중시켜, 1937년부터 1941년간 만주이주 조선인은 1만 6300여 가구에 달하였다. 만주에 도착한 시기별 인구집계에 따르면, 1940년 중국동북지방 조선족 인구의 약 30%가 그 지역 출생자이고 나머지 70%는 조선에서 이주해왔는데 그중 77%가 1926년 이후에 이주한 인구이다.²¹⁾

집단이주는 1937년 간도지역에서 1939년과 1940년 목단강과 흥안·남성을 포함하여, 정착하는 지역이 넓어졌다.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인 60% 이상이 연변에 거주하였지만, 이외 지역으로 이주가 활발히 진행되어 1944년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38%까지 줄었다. 이주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만주의 조선인 시가지 인구성장은 중국인보다 높았고, 1936년 만주 대도시 조선인 성장률은 234%를 기록하여 최고치를 이루었다.²²⁾ 시가지 이주

21) 1943년 작성된 『강덕7년(1940년) 국세조사보고』(滿洲國務院總務廳, 1943)에 의하면 만주지역 거주 조선인 총인구는 1940년 1,450,384명이다(박경숙, 2009, 『식민지시대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 제32권, 44~48쪽).

22) 안전농촌 건설이 기반하고 있는 ‘자작농장정계획’은 조선인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드는 것이다. 1933년부터 5년동안 2500세대 조선이주민 소작농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매년 10만 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매년 30만 엔, 도합 200만 엔을 간도에 투자하였다.

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용정촌·국자가·훈춘 시가지를 제외하고도 투도구·배초구·도문가·명월구·조양천·안동·봉천·길림·하얼빈·목단강 등지에 조선인이 집중되었다. 이리하여 1910년 20만이었던 한인의 동북이주민이 1942년에는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²³⁾

2) 동북지역 한인 민족문제의 이중성

1909년 일본이 청국과 체결한 ‘간도협약’ 이후 청조는 입적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 사람을 일제의 영사재판권에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중국 거주 조선인의 민족문제는 국내적으로는 청조봉건통치와 대외적으로는 일제의 통치 밑에 놓이는 이중성을 띠게 되었다. 1911년 청조가 무너지고 민국시기에 진입해서도 역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극소수 거류민을 제외하고 조선인을 소수 민족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동북지역의 지배자가 된 중화민국 정부와 군벌은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자 토지개간에 필요한 노동력인 조선 농민의 이주를 묵인하였다. 청조와 달리 변발호복을 요구하지 않았고 새로운 국적법을 시행하여 귀화를 장려하면서, 간도에서는 토지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²⁴⁾ 따라서 많은 한인들이 전통 복장과 관습을 유지할 수

1936년 9월 ‘만선척식유한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척’과 ‘동아권업회사’가 종전에 경영하던 토지매매업을 넘겨받아 계속 계획을 추진하였다. 1939년 ‘치안숙청’ 중점이 동북 동북부에서 동남부로 옮겨감에 따라 집단부락도 1만 3451개로 늘어났고, 1941년 4월 선만척식회사가 만척회사와 합병 후 조선인은 북만 및 내몽고 일대로 강제 이주되어 수전을 개발하였다. 시가지 조선인들은 농사 외에 정미소, 여관, 약방, 음식점 등 소규모의 영업을 벌였다(주성화, 2009, 앞의 책, 152~153, 169쪽).

23) 중국 동북지역의 한민족 인구이동과 증가율(1910~1942년)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연도	1910	1915	1920	1925	1930	1935	1940	1942
인구	20만 2천	28만 2천	45만 2천	53만 1천	60만 7천	82만 1천	130만	150만
기간	1910~15	1915~20	1920~25	1925~30	1930~35	1935~40	1940~42	1910~42
증가율	6.9%	10.25%	2.9%	2.6%	6.3%	9.63%	7.4%	6.49%

* 김상철·장재혁 지음, 2003, 『연변과 조선족-역사와 현황』, 백산서당, 20쪽.

24) 당시 용정시 지방정부는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을 거주 기간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으며, 거주 3년 이상이면 식염을 지급하고 10년 이상은 영주자로 보아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의 변화로 간도 이주 조선농민들은 자작농이 되었다(임계순, 2003, 앞의 책, 69쪽).

있고, 토지소유가 가능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기 쉬운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²⁵⁾

그러나 일제는 그들의 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인 문제에 간섭하고, 일진회·조선인거류민회·조선인회·보민회 등 친일단체를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들 단체를 이용해 중국지방 정부의 주권행사를 방해하고 조선인을 통제하였다.²⁶⁾ 중일 쌍방이 조선인에 대해 각각 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결과적으로 조선인은 이중국적자가 되어 양국의 박해와 제재를 동시에 받게 되었다.²⁷⁾ 게다가 일제가 조선인을 이용하여 토지구입을 시도하는 등 만주로의 세력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 군벌정부는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일제의 중국침략 선봉자로 간주하고 각종 방법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다.²⁸⁾ 봉천성 지방당국은 벼농사에 유능한 조선인이 필요하였지만 조선인 이민을 이용한 일제의 대륙침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인의 벼농사를 권장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엄금하며 그들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중국침략이 중지되지 않는 한 조

25) 鶴鳴雪嶺, 1997. 앞의 책, 164쪽.

26) 간도에서 일본경찰이 주둔해 있는 곳마다 조선인거류민회를 조직하였고 현재의 요녕성과 길림성 남부에서는 영사분관이 있는 곳마다 조선인회와 保民會를 조직하였다. 이 친일단체들은 항일정보를 수집하고 일본 군경과 협조하여 항일 활동을 탄압하였다. 또한 일진회를 파견하여 요녕성과 길림성 남부에 친일적 제우교, 시천교 등의 종교를 전파하고, 조선인들이 중국 지방정부 관할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종용하였다(고영일, 2002. 앞의 책, 176쪽).

27) 1915년 21개조를 체결한 일제는 ‘이미 중국으로 귀화한 조선인이라도 일본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중국 동북지역 거주 조선인을 통제하였다. 일본은 조선인 다수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통치에 불리하다고 판단, 조선인이 일본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 국적에 입적하였더라도 일본 신민으로서 영사재판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 정부는 조선인 보호를 구실로 중국 주권을 침범하는 일제에 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미 입적귀화한 조선인을 중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조선인에게 적극 입적 귀화할 것을 강요하였다. 중국 정부는 조선인이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국에 5년이상 거주하였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중국인 2명 이상이 보증하면 입적을 허가하였다(權立, 『論中央滿洲省委對於東北朝鮮族的基本政策』; 임계순, 2003. 앞의 책, 72쪽).

28) 손춘일, 2001, 『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 문제와 그들의 곤경』 『정신문화연구』제24권 2호, 148쪽.

선인 이민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은 위축되어 갔고 그들의 주요 생업인 벼농사 역시 그만큼 더 고통스럽게 되었다.²⁹⁾ 1925년 三矢협정의 체결로 중국정부는 조선 민족주의자들을 체포해 일본에 인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1927년 일제가 만몽 적극정책을 추진하자 중국 당국의 재만 한인들에 대한 태도는 악화되어 적극적 탄압은 물론 구축정책까지 취하였다.³⁰⁾

1930년 한인 농민들과 중국인 농민들 간에 발생한 충돌사건인 만보산 사건은 중·일 양국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보던 조선 농민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³¹⁾ 현재 길림성 만보산 지역에 조선족 농민들은 거의 떠나고 논농사는 대부분 한족들이 짓고 있지만, 가로 100cm, 높이 68cm, 두께 20cm의 만보산사건 기념비가 세워져 만보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1985년 길림성 德惠시가 세운 기념비는 앞면에 ‘장춘시 중점문화보호단위, 만보산사건 舊址, 장춘시 인민정부 1985년 12월 공포, 덕혜원 인민정부 立’이라고 새겨져 있다.³²⁾

29) 1923년 북경 중앙정부가 일본정부에 ‘21개조약’의 전면적인 폐지를 통고한 뒤, 봉천성장은 남만지역의 조선인들이 사사로이 토지와 가옥을 상조할 수 없으며 기타 25개현에서는 토지와 가옥의 조차 자체를 엄금하였다(김영, 2009, 앞의 논문, 89쪽).

30) 중국동북의 奉天 군벌정부가 조선유민(이미 입적한 조선인을 포괄하여)들을 제한하거나 배척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조선 유민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전례없던 학대와 착취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군벌정부는 조선인을 강제로 추방하지는 않았다(고영일, 2002, 앞의 책, 178쪽).

31)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박영석이 1920년대의 한인 이민이 중일간의 각축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던 사정, 일본이 사건을 대륙침략의 구실로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조작 과정하여 한·중 양국민의 단결을 방해하고 조선에서의 반화고 폭동으로 번지게 했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바 있다(박영석, 1978, 『만보산사건연구』, 아세아문화사). 송한용은 만보산 사건의 遠因인 중국군벌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한인정책과 관현의 부패와 지나친 단속, 그리고 한인들이 생존을 위해 일본명사관에 의존하게 된 모습에 대해서 밝혔다(송한용, 2011, 「장학량정권의 對韓人政策-만보산 사건의 遠因을 찾아서」, 『만주연구』 제11집). 이밖에 손승희, 2009, 「근대 한중관계사의 새로운 시각 모색-만보산 사건 연구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2를 비롯하여 만보산 사건을 둘러싼 외교행위와 중국의 한국인식과 관련한 연구 등이 다수 있다.

32)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 당시 문제가 되었던 관개수로는 많이 알아져서 잘 알아볼 수 없고, 만보산 伊通河 건너편에 한국인 마을이 있었던 곳은 논으로 변하였다. 현재 기념비는 덕혜시 당국이나 현지주민들의 무관심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으며, 기단부 토대가 비에 씻겨 내려가 다시 보강할 필요가 있다(김주용 외 4인, 2009, 『국의향일유적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93~94쪽; 박환, 2001,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 111쪽).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인의 자유이민 시기는 끝나고 새로운 이민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만주사변 이전에는 이주정책 주체의 변화(1910년까지는 조선과 청, 1910년 이후는 일제와 중국)에 따라 다양한 성격 변화(금지·목인·허용·환영·탄압)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틀은 양쪽 국가의 쌍방 정책이 이주의 성격을 좌우하는 국제이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30~40년대 일제가 만주국을 수립하여 중국동북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국제이민이었으나 내면적으로 공식적인 식민지 조선으로부터 비공식적인 식민지인 만주국으로 이동한 일본 제국내의 제국내 이민으로 변화였다.³³⁾

1930년대 다양한 한인 집단이주의 형태를 연구한 김주용은 조선총독부와 만척주식회사가 지역적 편제를 통하여 이주를 시행하였으나, 이주 당시의 선전과 이주 완료 후 정책주체의 태도가 상이했음을 밝혔다. 그는 1930년대 집단으로 이주된 한인들은 기존 이주한 한인과 달리 새로운 문화충격을 받으면서 감옥과도 같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였다고 한다.³⁴⁾ 이러한 이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인의 동북지역 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 1936년 만척주식회사 설립,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만주개발과 함께 자유이민에 이어 개척이민까지 시행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민자들의 원적지 구성도 크게 변화하였다. 만주사변 이전에 약 80%의 재만 조선인이 북부지방 출신이었던 비율은 통제이민의 경우 뒤바뀌어 약 70~90%의 이주자들이 남부지방 출신이었다.³⁵⁾

만주국의 성립이후 재만 조선인들은 만주국의 ‘공민’이자 ‘五族’의 일원

33) 김기훈, 2008, 앞의 논문, pp.198~199.

34) 김주용, 2009, 「1930년대 간도지역 한인의 집단이주와 삶」, 『한국학연구』21집.

35) 남부지방 출신 이주자가 증가한 것은 경상·전라·충청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만주이민으로 해결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영남지방 수해 대책 및 농촌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만주이민 정책을 발표하였다(한석정, 1993, 「만주국과 조선과의 관계」, 『아시아문화』제19호, 137~139쪽).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와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지구에 북부지방 출신들이 많고, 멀리 떨어진 중만과 북만지구에 남부지방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거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유산은 현 중국 조선족의 지역적 분포에서 여전히 발견된다(김기훈, 2008, 앞의 논문, 212~213쪽).

으로서 합법적인 지위를 취득하고, 토지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등 일본인 민으로서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일제는 동북침입 후 조선인의 중국국적 가입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일본신민’으로 몰아붙이고 이른바 ‘치외법권’을 실시하였다. 이와 반대로 중국정부는 중국국적에 가입한 조선인을 중국국민으로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들은 법률상 한 시기에 ‘두 가지 국적’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에서의 식민통치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족을 이용하여 동북을 침략하려는 ‘통치와 이용’ 정책이 가져다준 결과였다.³⁶⁾ 또한 재만 조선인은 이등국민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만주는 개인영달과 벼슬의 꿈을 안고 있던 이들과 부일세력들이 모여드는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민생단³⁷⁾, 협화회, 간도협조회, 무장자위단 및 선무공작반을 비롯한 친일 주구단체는 친일 조선인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만주국군 국경감시대 경찰 관리 등 직업에 종사하는 친일 조선인들도 많았다.³⁸⁾ 일제는 1935년 9월 재만 조선인 교육개선안인 ‘만주국교육방안’을 제정하여, 한인의 반일사립학교를 강제로 합병·개편·폐교시켰으며 반일애국사상이 있는 한인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은 엄격한 심사와 면직·체포·감금·학살 등 진압을 감행한 반면 친일교육을 증대하였다.³⁹⁾ 이로인해 이념적인 측면이 약한 민족진영에서 친일파로 전향하는 현상도 다수 나타났다.⁴⁰⁾

최근 한인 친일단체인 ‘민회’의 1910년대부터 1937년 해산까지 전체 변

36) 김태국, 1996,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 조선대, 『동북아연구』2-1, 139쪽.

37) 민생단은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의 ‘민족자치’를 추구하고, 중국을 상대로 ‘간도 독립’의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민생단의 ‘간도한인자치’의 구호는 시기적으로 호소력이 컸다. 그러나 일제는 동북 전체에 대한 식민통치체계의 확립과 괴뢰 만주국 건설이라는 보다 큰 정략목표에서 조선인의 ‘간도한인자치’ 운동을 결코 용인할 수 없었으며, 또 민생단의 자치운동은 중공 계열의 격렬한 반대를 받았다. 민생단은 결국 중국사회의 질서와 중공의 격렬한 반대, 자체 모순 등으로 인해 5개월 만에 해체되고 말았다(김성호, 1999, 『1930년대 연변민생단사건 연구』).

38) 최봉룡, 2005, 앞의 논문, 104쪽.

39) 이로 인해 만주사변전 동북지역에 710개소였던 조선인학교가 1932년 377개로 감소, 길림성 조선 사립학교도 308개(종교단체 포함)에서 1935년 231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제가 경영한 조선인 보통학교는 만주사변전 45개에서 1936년 76개로 많이 늘어났다(류연산, 1992, 「중국에 동화되는 조선족문제의 심각성」, 『역사비평』21호, 311~312쪽).

40) 박영석, 2008, 앞의 논문, 193쪽.

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그간 식민지 시기 한인의 항일독립운동의 측면만 부각하던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만주 한인사회의 실체가 보다 다층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⁴¹⁾ 사실 광복후 만주에 거주하던 200만에 달하던 재만 조선인들 중에서 약 80만이 한반도로 귀국하였는데, 그들의 귀국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상당한 부류는 만주에서 반민족적인 행적인 남겼던 ‘친일파’들이 속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⁴²⁾

한편 종래 만주국의 민족형성과 외래 거주민의 사회적 위치에서,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이 중간자(이등국민)로 알려져 온 것과 달리, 만주국의 조선인들은 중간자가 될 만한 돈도 권력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있다.⁴³⁾ 재만 한인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등 국민론’은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 희망에서 ‘조선인들만의 상상의 공동체의식이 파생시킨 허상’이었다는 것이다.⁴⁴⁾ 만주국은 ‘오늘날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동북아시아 블랙박스’⁴⁵⁾에 해당한다고 지적되듯이, 그동안 재만 한인의 실상은 망각되거나 은폐되어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만주국이라는 공간과 그전부터 존재한 공간이라는 이중성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모순적 민족 정책에 대응하면서 저항과 친일이라는 양자택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생존의 공간을 살아왔다.⁴⁶⁾ 따라서 재만 한인이 만주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생활공간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투쟁을 전개한 고난과 희생이 제대로 파악되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주 한인의 항일투쟁에 대해서는 한동안 역사교과서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정도로,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동기든 조선에서 못살고 찾아간 곳일 뿐, 개척과 희망의 땅이자 항일운동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는 희박하였

41) 김태국, 2001, 『만주지역 ‘조선인민회’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42) 최봉룡, 2005, 앞의 논문, 109쪽.

43) 윤휘탁, 2001,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 169집.

44) 김기훈, 2006, 「한인의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제76호.

45) 한석정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7쪽.

46) 야마무로 신이치·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6쪽.

다. 이는 당시 중국 공산화와 분단으로 인한 거리감,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좌우대결 등이 만주기억을 종합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間島의 역사와 이주민, 그리고 만주 지역 독립운동사가 1969년 중고등 역사교과서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독립군단의 활약, 191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을 독립운동기지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만주기억을 재구성하려는 국가의 기억관리가 본격화되었다.⁴⁷⁾ 한편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만주 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을 자기역사의 한 부분으로 서술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 기억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핵심기억으로 자리 잡았다.⁴⁸⁾ 식민지기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항일활동은 기본적으로 중국혁명의 완수와 조선의 독립이라는 이중의 임무를 띠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가 북한정권의 핵심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현재 남북한과 중국학계가 다양한 시각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⁴⁹⁾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1910~20년대 동북지역 항일독립운동과 유적지 보존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이 건립되고 이어 중국 각지에서도 항일전쟁 유적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항전기념관의 건설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토대의 축적과 한중수교로 학자들의 동북지역 방문이 자유로워진 1990년대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출간한 답사

47) 그 근본적인 줄기는 『독립운동사』 5,6권 (1973, 1975)이며, 국사편찬위원회(1971~), 추헌수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 편찬위원회(1971~1976)에서 각각 자료집을 집중적으로 출판하면서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신주백, 2008, 「분단과 만주의 기억」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329쪽).

48) 특히 김일성이 이끈 항일무장투쟁이 ‘조선민족해방투쟁의 주류’였다고 평가되었다(신주백, 2008, 앞의 논문, 321~322쪽).

49) 박영석, 2008, 앞의 논문, 190쪽.

기를 통해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투쟁 유적지가 새롭게 기억되고 재조명되어 왔다. 예컨대 윤병석·조동걸·박환·서중석·장세운·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문화관광부·한국근현대사학회 등이 중국동북지역 항일운동 유적지 관련 저서를 잇달아 출간하였다.⁵⁰⁾

하지만 이는 북한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북한은 1953년 9월초부터 12월 하순까지 ‘김일성원수 항일유격투쟁전적지 조사단’이 瀋陽·하얼빈·吉林지역과 압록강·두만강 연안, 延邊의 왕청·和龍현 그리고 松花江 하류인 북만주 지역까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 사적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중점은 중국공산당 계열의 東北抗日聯軍 등 혁명투쟁지역의 근거지·밀영지·전투지, 또는 김일성의 청소년시대 연고지 등 도합 90여개 소였다. 조사단의 작가였던 송영이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를 출간하였다.⁵¹⁾ 이어 1959년 북한의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답사단’이 연길·화룡·훈춘·왕청·안도현 등지의 유격근거지 전적지와 중요회의 장소 등 200여 곳의 사적지를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일무장투쟁전적지를 찾아서』⁵²⁾를 발간하였다. 70년대 초반에도 중국 동북지역에 산재한 김일성과 동북항일연군 유적을 조사하고 단행본을 간행하였다. 연변지역 조선족 지방자치단체도 김철수의 『연변항일사적지연구』를 비롯하여 유적지를 조사한 단행본을 발간하였다.⁵³⁾ 연변지역에서 발간된 항일투쟁 사적지의 성과물은 주로 중국 공산당계열의 항일운동 유적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

50) 조동걸, 1995,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지식산업사; 박환, 2001,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국학자료원; 윤병석, 2004,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지식산업사; 국가보훈처, 2003,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장세운, 2004,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2호, 고구려연구재단; 김주용 외 4인, 2009, 『국의 항일유적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이 출간되었다.

51) 송영, 1956, 『백두산은 어디서나 보인다』, 평양: 조선민주청년사.

52) 항일무장투쟁사적지조사단, 1960,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3) 연변박물관, 1986, 『연변문화유물략편』;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유물관리위원회·연변박물관, 1983, 『연변문화유물자료취편』; 『연길현 근현대유적지 조사표』, 『룡정현 근현대유적지 조사표』 등.

다.⁵⁴⁾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투쟁 유적지는 1910년 이전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 후 동북의 동청철도 이남까지 세력범위를 확대한 일제는 1907년 8월 ‘조선통감부간도파출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간도’ 한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병분주소를 설치하고 친일조직인 일진회를 이용하여 민족을 이간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 의병장 유인석과 이상룡, 新民會의 이회영 등 한인들이 중국의 동북3성을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투쟁하였다. 이시기 항일운동의 흐름은 첫째는 교육·계몽운동으로, 李相禹이 1906년 龍井에 세운 瑞甸書塾을 효시로 신식학교를 세워 조선인을 계몽시키고 반일의식을 고취한 것이다. 둘째는 契동 사회조직 사업으로, 유인석은 保約社, 이회영은 新民會, 이상룡은 扶民團, 김약전 등은 墾民會를 조직하여 흩어진 조선인의 친목과 단결, 애족심을 일으키었다. 셋째는 의병활동 연장선상의 반일무장투쟁이다. 일제의 강점 전후에 集安·通化의 유린석 부대, 長白·撫松의 이상룡 부대, 훈춘·연해주의 홍범도 부대가 각각 군세를 떨쳤다.⁵⁵⁾

현재 ‘서전서숙’ 기념비는 1995년 4월 15일 용정실험소학교와 용정항일역사연구회가 건립하여 현재 용정실험소학교 구내에 세워져 있다.⁵⁶⁾ 하지만 같은 시기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던 명동 소학교는 당시의 자취는 사라지고 옥수수밭에 덩그러니 표지석만 남아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받았던 旅順의 일본관동지방방법원구지진열관, 안중근·신채호·이회영 등 한국독립지사들이 순국한 旅順日俄감

54) 임희준, 1996,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 유적지』, 연변대학출판사.

55) 고영일, 2002, 앞의 책, 151~152쪽.

56) 서전서숙은 1906년 李相禹를 중심으로 李東寧·정순만·여준·박정서 등 독립운동가들이 일치단결하여 건립하였다. 서전서숙은 철저한 항일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독립군 양성소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설이 1908년 4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자 학교가 재정난에 부딪히고, 이 지역에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감시와 방해가 강화되자 1908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박환, 2001, 앞의 책, 195~196쪽).

옥은 박물관으로 잘 보존·전시되고 있고, 2008년에는 하얼빈의 조선민족 예술관 내에 안중근 전시실과 조선족 생활전시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안중근의사가 침략의 원흉인 이토오 히로부미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 하얼빈역 플랫폼은 저격 현장만이 타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어느 곳에서도 역사의 현장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은 찾아 볼 수 없다.

1910년대 墾民會·중광단 등 한인의 자치기관이면서 독립운동을 병행하는 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간민교육회를 토대로 설립된 간민회는 반일단체로 조선인들을 조직하여 반일운동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간민회 본부가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⁵⁷⁾ 1915년 5월 길림성 통화현에 개교한 新興武官學校가 1920년 8월까지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이를 통해 동북지역의 조선인 반일 무장대오가 일정한 규모와 장비를 갖춘 무력투쟁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⁵⁸⁾ 여기서 배출한 학생들은 西路軍政署·北路軍政署·의열단·광복군 등 만주와 중국본토의 여러 단체에서 각각 활발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신흥무관학교의 옛터는 대부분 밭으로 변해있어 그 흔적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⁵⁹⁾

1919년 3·13 반일 시위운동은 이러한 반일투쟁과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일어나 많은 동포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용정시 항일투쟁 기념회가 세워놓은 ‘3·13 반일의사릉’이라는 목비가 유적으로 남아있다. 목비의 뒷면에 “1919년 3월 13일 연변지구 조선족 인민 군중의 반일 대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과 중국 침략정책에 저항하여 분개한 것으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군중적 혁명투쟁이었다. 같은 달 17일 용정 합성리 공동묘지

57) 김철수, 2001, 앞의 책, 120쪽.

58) 항일의병부대는 1914년 金東輝·金立이 왕청현에 무관학교를 세운 이래 1917년 李東輝는 梁河龜 金南極과 훈춘현에 북일중학을, 李甲은 밀산현에 무관학교를 세웠으며, 이 시기에 유하현에 세워진 신흥강습소가 新興武官學校로 개칭되었다(김홍명, 1996, 「동북3성 항일운동의 성장」, 조선대, 『동북아연구』96-1, 153쪽).

59) 신흥무관학교는 일제 군경과 마적의 습격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결국 1920년 8월에 폐교하였다(김주용 외 4인, 앞의 책, 2009, 110쪽).

에 순난자 안장식을 장중하게 거행, 이 의사릉을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와 지방 당국의 죄행을 항의한 것이다”고 기술되어 있다.⁶⁰⁾ 1919년 3월 만세운동 이후 무장 단체인 대한독립군·대한국민회군·북로군정서 등이 조직되었고,⁶¹⁾ 이어 1920년 鳳梧洞·靑山里 전투 등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둔 이 전투는 중국동북의 항일투쟁사에도 대서특필할만한 사건이었다. 상해 임시정부 군무부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는 도문시 봉오수고(水庫)에서 1920년 6월 6~7일 홍범도 최진동의 독립군에 의해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여명, 경상 100여명이나 되었으나, 독립군 피해는 전사 4명, 중상 2명에 그치는 승전을 거두었다고 한다. 현재 봉오동은 저수지로 변화되었으며, 1993년 6월 9일 중공도문시위 통전부, 도문시박물관, 도문시 수도공사 등이 저수지 근처에 봉오동 反日戰迹地 기념비를 건립하였다.⁶²⁾

봉오동 전투에 이어 1920년 10월에 한인들로 구성된 반일무장부대가 홍범도, 김좌진 등 항일장군들의 지휘 하에 연변지역에서 벌인 청산리 전투에서 천여 명의 일본군을 살상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중공 만주성림시위원회 서기 陳爲人は 중공중앙에 보낸 보고서에 “만주에는 백만이 되는 조선족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비밀적인 반일조직과 3천이 넘는 무장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믿을만한 동맹군이다”고 기록하였다. 현재 봉오동 전투현장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수몰되어 있다. 저수지 아래에 세워진 봉오동 전투 전적비도 비문이 훼손된 채 초라하게 서 있다. 청산리 대첩의 격전장에는 ‘청산리 항일전적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고 “일제의 경신년 토벌에 직면하여 우리 항일무장부대는 홍범도의 영도하

60) 윤병석, 2004, 앞의 책, 79쪽.

61) 1919년 3.13 반일운동 이후 조직된 한인 반일무장단체는 연변의 경우, 대한군정서 1200명, 대한국민회 450명, 대한의군부 340명, 대한북로독군부 460명, 대한광복단 200명, 대한민국의민단 300명, 신민단 200명, 대한공의단 50명, 대한의사부 200명, 敎國軍 20명, 야단 20명, 훈춘교민회 250명, 청년단 10명 등 합계 3,7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김철수, 2001, 앞의 책, 188~189쪽).

62) 봉오는 행정구역상 도문시에 속한다(박환, 2001, 앞의 책, 179쪽).

에서 유동작전을 전개하였다. 1920년 10월 21~22일에 청산리 백운평·천수평·어랑촌 등지에서 적들을 호되게 타격함으로써 인민들의 반일투쟁 신심을 북돋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⁶³⁾

일제는 청산리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기 위해 1920년 말 다시 동북을 침략, 연변 등지의 조선인부락을 토벌하고 3000여명의 조선인과 일부 중국인을 살해한 ‘간도참변(경신참변)’을 저질렀다.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참안지가 화룡현 41곳, 연길현 38곳, 왕청현 19곳, 훈춘현 31곳 등 도합 129곳이고, 이 4개현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된 수는 522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조선족 이외의 민족이 살해된 수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많은 가옥과 학교 등이 소각되었다.⁶⁴⁾ 간도참변의 피해 유적지와 사상자를 조사한 조동걸 교수는 표지판이나 기념비 등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⁶⁵⁾ 경신대참변은 김정규가 남긴 조선족 역사서인 『야사』(1907년 3월부터 1921년 11월까지 북간도를 중심으로 의병과 독립군의 활동을 기술한 전17권 18책, 총 2,044면에 잘 나타나 있다. 『야사』는 일제 침략군의 압박을 받아 반일 항쟁군이 나자구와 밀산 방면으로 북상하게 되고, 이 와중에 일제 침략군이 저지른 간도한인의 참혹한 학살로 인해 의군부의 정위대 일부가 북상하고 나머지는 풍비박산이 났으며, 의군부 총무 최우익이 의란구에서 동지 십여명과 함께 피살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⁶⁶⁾

2010년 간도참변 발생 90주년 기념논문을 발표한 허수동에 의하면, 현재 간도참변에 대한 연구와 기념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전문적인 저서가 없거나 논문 특히 중국어 논문이 적고, 鄭基善 추모비⁶⁷⁾ 등 초라한 기념

63) 윤병석, 2004, 앞의 책, 62쪽.

64) 『간도사건 조선인, 중국인 사상자조사표, 제19사단사령부, 1921년 2월 25일, 『현대사자료』 (28), 조선(4) 520~543쪽에 수록되어 있다. 1921년 3월 작성한 조사표에는 소각한 가옥 165개 지방에서 도합 474채이고 소각한 학교는 14개소라고 하였다(김철수, 2001, 앞의 책, 425쪽).

65) 일본군의 간도일대 학살지역 명단은 조동걸, 2001, 「간도(경신)참변의 실상」,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성』 푸른역사, 260~261쪽 참조.

66) 경신참변을 목도한 후 김정규는 15년 동안 기록해오던 『야사』마저 절필하고, 이를 숨겨 놓고 후일에 전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한다(윤병석, 2004, 앞의 책, 98~101쪽).

비가 몇 개 있을 뿐 관련 기념시설도 많지 않다. 허수동은 간도참변에 관한 연구와 기념이 다른 지역의 참변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있는 상황을 제고하기 위해 반일과 항일사적을 중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일제의 침략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한 연구와 기념을 중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간도참변’에 대한 연구와 기념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를 제기하였다.⁶⁸⁾

동북지역 항일투쟁은 1910년~20년대 중반까지는 개별운동자 중심의 조직이 많았으므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나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등과 같이 항일운동간부에 대한 일제의 체포·사망으로 인하여 독립운동 단체의 성쇠가 많이 좌우되었다. 1925년 6월 ‘三矢협정’ 이후 일제가 봉천군벌을 이용하여 한인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지만, 그럼에도 한인들은 다양한 會·軍·團·府·黨·연합회 등을 조직하고 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⁶⁹⁾

김좌진 부대는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이후 중국과 러시아 국경일대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흑룡강성 영안 및 海林지역으로 돌아와 1925년 신민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단체를 재정비하였다. 김좌진은 1929년 7월 신민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여 본부를 산시역 부근에 두었다. 무정부주의 이념을 수용한 김좌진은 한인의 농촌자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정미소를 운영하고 교육활동과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중, 1930년 1월 암살되었다.⁷⁰⁾ 해립과 산시 일대에는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 금성정미소

67) 石泉居士鄭基善追慕碑는 1940년 4월 5일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정기선은 1916년 창동학교를 졸업하였고, 학창시절부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경신참변시 일본군에 체포되어 연길현 태양구 횡도사에서 학살당하였다(박환, 2001, 앞의 책, 224쪽).

68) 허수동, 2010, 『關於“間島慘變”研究與紀念問題』, 『만주연구』10집.

69) 대한국민회 등의 회, 서로군정서·북로군정서 등 군정서, 대한독립단 등의 단, 대한통군부·대한통의부·의군부·정의부·신민부·참의부 등 부, 고려혁명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 등의 당, 한족총연합회·한족자치연합회 등의 연합회, 군정부 등 정부형태 등이 대표적이다(박영석, 2008, 앞의 논문, 192쪽).

70) 구한말부터 1930년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김좌진은 흑룡강성 산시에서 1930년 1월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하여 암살당하였다. 그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의 한족총연합회의 대중교적 민족주의 세력과 무정부주의 세력간의

등 김좌진 장군 관련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산시에는 김좌진 장군의 순국지 등이 복원되어 있다. 해림시의 韓中友誼 공원내에는 만주지역 독립운동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어 김좌진 장군의 항일운동과 만주지역 항일운동의 전체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항일투사들의 활동과 한인이주 역사, 일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⁷¹⁾

4. 1930년대 이후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유적과 기억·기념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은 조선공산당의 만주총국, 민족주의 계열의 조선혁명군(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의 세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1926년 9월 용정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동만 구역국은 연변각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1928년 2월 연변에 첫 중국공산당 조직인 중공 용정총지부를 바탕으로 중공 동만구위가 건립되었다. 중공만주성위의 소속당원은 1931년 4월 1190명으로 발전하였으며, 동만지역의 당원은 636명 중 조선족당원이 614명으로 97%를 점하였다. 남만지역 당원중 한인 당원은 96.5%를 점하였고, 북만지역 당원은 244명 중 대부분이 한인이었다.

조선혁명군은 동북지구에서 중국인들의 반만항일운동과 적극적으로 협동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후 일부 중국 동북군들이 요녕성의 唐聚伍, 길림성의 마점산, 흑룡강성의 李杜 등의 지휘하에 ‘의용군’ ‘구국군’ ‘자위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본군에 항거하였는데, 당시 대원들 다수가 한인으로 구성되었다. 1932년 3월 괴뢰 만주국 성립후 唐聚伍는 桓仁현에서 정식으로 遼寧항일민중자위군을 선포하였는데, 조선혁명군

분열 및 한족총연합회와 공산주의 세력간의 분열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화요 회파를 이용하여 한족총연합회의 부정부주의자와 대중교적 민족주의자의 연결고리인 김좌진을 암살함으로써 화요파와 한족총연합회의 분열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박환, 2001, 앞의 책, 139~141쪽).

71) 김주용 외 4인, 2009, 앞의 책, 95~96쪽.

을 창건한 梁世奉⁷²⁾은 唐聚伍의 요청에 응해 사령부를 通化로 이전시키는 등 중공이 영도하는 동북항일련군과 항일통일전선을 형성하였다. 조선혁명군은 遼寧항일민중자위군과 연합부대를 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공계열의 항일무장단체인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고, 길림자위군·중동철도호로군, 길림 구국군과 연합하여 반만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⁷³⁾

1931년 12월에서 1933년 9월에 이르는 시기에 동북 각지에 등장한 수많은 조선족 항일무장부대는 그 수가 30여만 대원에 달하였다.⁷⁴⁾ 하지만 1933년 10월 일제의 토벌과 내부 이념 갈등과 분열 등 원인으로, 상해 임정의 요청에 의해 이청천등 30여명 독립군지휘관들이 관내로 이동하게 되자, 만주에는 梁世奉장군이 영도하는 조선혁명군만 남게 되었다. 남은 부대들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중국동북지역에서 大甸子령 전투, 영릉가 전투 등 항일전을 계속하였다.⁷⁵⁾ 이들은 1934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대일투쟁을 견지하였지만, 1937년 여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6,70명의 무장력이 楊靖宇군이 영도하는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 편입되었다.⁷⁶⁾

이 시기 동북지역에서 중국군과 연합 또는 단독으로 항일투쟁을 계속한 한인들의 격전지 일부가 현재 사적지로 남아 기념·기억되고 있다. 1991년

72) 본명은 梁瑞鳳이며, 梁世奉으로도 불린다. 1895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출생, 1919년 요녕성 동부로 이주하여 반일투쟁을 벌였고 1929년 조선혁명군 제1중대장, 1931년 조선혁명군 총사령이 되어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하였다. 1932년 唐聚伍가 인솔하는 ‘遼寧抗日民衆自衛軍’과 연합하여 흥경·청원·무순·봉성·본계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을 타격하였으나, 1934년 9월 신빈현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희생당하였다(禹鍾烈, 2009, 『朝鮮族－遼寧少數民族叢書』, 遼寧民族出版社, 21쪽).

73) 최봉룡, 2005, 앞의 논문, 104쪽.

74) 왕정현 항일유격대, 연길현 항일유격대, 화룡현 항일유격대, 훈춘현 항일유격대, 남만유격대, 영안유격대, 요하반일유격대, 주하항일유격대, 밀산홍색유격대 등 항일무장부대가 창설되었다(김홍명, 1996, 앞의 논문, 155쪽).

75) 장세윤, 1989,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3집.

76) 조선혁명군은 부총사령 박대호, 제2사 사장 최윤구, 참모장 최기홍등이 60여명을 거느리고 환인현 우모령에서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에 편입됨으로써 중언을 고하게 되었다(최봉룡, 2002,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항일작전－양세봉 사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31, 75쪽).

新賓滿族 자치현은 1932년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신빈현 영릉가를 공격하여 일본 만주군 80여명을 섬멸한 전투지에 抗日英烈紀念碑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⁷⁷⁾ 1935년 9월 中韓 항일동맹을 조직하여 진일보 항일전선을 형성하여 일본군과 전투중 희생된 李紅光 열사의 塑像도 건립하여, 그의 영웅적 사적을 후대의 교육을 위해 기념하고 있다.⁷⁸⁾ 신빈현 인민정부는 조선혁명군 총사령 梁世奉 장군의 항일업적을 기리어, 1995년 조선혁명당 등의 본부가 있던 왕청문 조선족 소중학교(小中學校)에 흉상을 건립하여 기념하고 있다.⁷⁹⁾ 비록 기념비와 동상은 없지만, 이 지역 답사기에는 동북 지역에 이상촌을 건설하고 반일투쟁을 벌이던 김소래⁸⁰⁾ 등 많은 한인 반일투사들이 일본군에 의해 희생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독립군이 1933년 7월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과 싸워 큰 전과를 거둔 大甸子령에도 사적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이청천 장군 등 한중연합군이 대전자령의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 1개 연대를 완전히 섬멸하고 전리품을 획득한 곳’임을 기념하고 있다. 1933년 9월 한국독립군이 만주에서 승리를 쟁취한 마지막 전투인 흑룡강성 동녕현성 전투 역시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당시 한국독립군 이청천은 오의성의 중국구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의

77) 이 비는 만주사변 60주년을 맞이한 신빈滿族자치현 인민정부와 중공 신빈滿族자치현위원회가 건립하였다(박환, 2001, 앞의 책, 61쪽). 비문에는 조선족 항일영도자인 李紅光, 李東光, 韓浩, 李敏煥 등의 이름과 楊靖宇 장군이 친필로 쓴 ‘中朝民衆聯合歌’와 ‘中韓民族聯合起來’가 새겨져 있다(禹鍾烈, 2009, 앞의 책, 22쪽).

78) 李紅光은 1910년 경기도에서 출생하여 9세때 길림성 이통현에 정착하였고, 1930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여 중공이통현 특별당지부조직위원과 반석유격대 대장이 되었다. 1933년 9월 만남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독립사로 개편되자 楊靖宇의 참모장이 되었고, 1934년 11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의 군참모장겸 제1사사장이었으나, 1935년 5월 신빈현에서 일본과의 전투중 희생되었다. 毛주석도 이홍광을 동북의 유명한 의용군 영도의 한명이라고 언급하였다(禹鍾烈, 2009, 앞의 책, 25쪽).

79) 1995년 8월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신빈현 왕청문 진 인민정부에서 기념 흉상을 세웠으나, 이 비는 철거되어 순국 장소에 재건립될 예정이다(김주용 외 4인, 2009, 앞의 책, 113쪽).

80) 9.18 이후 중국 구국군과 손잡고 항일전을 펼치다 1933년 3월 피살된 김소래는 1914년 동북으로 들어온 후 반일단체 <대진단>을 조직하고 1928년부터 념안현 와룡향에 이상촌을 건설하고 항일투쟁을 벌이다 세 번이나 일본경찰에 체포되는 고통을 겪었다(강룡권, 2000, 『동북항일운동유적답사기』, 연변인민출판사, 11~12쪽).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던 동녕현성을 공격하였다. 현재 당시 큰 격전이 벌어졌던 서산포대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⁸¹⁾

한편 동만지역의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자치를 추구한 ‘민생단 사건’으로 인해 중국공산주의자들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았고, 중국공산당의 좌경노선이 청산되지 못하여 항일유격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중공중앙의 1935년 8.1선언 이후 동북항일연군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1936년 2월 양정우·주보중 등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들은 공동명의로 ‘동북항일연군통일군대 재건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종교·정파·개인·단체·빈부를 불문하고 항일구국 하겠다면 동북항일연군은 언제든지 이들과 행동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 동북항일연군의 세력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인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인들과 연합하여 항일유격대,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을 조직하고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시기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일제가 유격대와 교전한 수는 1933년 111차, 1934년 108차이고, 1934년 4월부터 1935년 말까지 동북인민혁명군이 120여 차의 전투를 진행하였다.⁸²⁾ 중공 만주성위에 속한 재만 조선인들의 항일유격 투쟁은 만주사변 이후부터 점차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그들은 동만과 남만 그리고 북만의 항일유격대 창건과 항일유격 근거지 건설에서 모두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 연합부대의 성격을 띤 ‘동북인민혁명군’(1936년 3월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 및 항일 소부대 활동(1940.10~1945.8)에서 공적을 남겼다. 동북지역 한인 군대는 1933년 민족진영의 한국독립군 주력부대가 임시정부와 합류하기 위해 중국관내로 이동한 상황에서도, 또한 조선혁명군의 활동이 1937년 이후 크게 약화된 후에도, 지도자를 잃고 좌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만주사변으

81) 김주용 외 4인, 2009, 앞의 책, 80~81, 101쪽.

82) 『현대사자료』(30), 『조선』(6) 188~222쪽; 『1932년~1934년초 전적지 일람표』, 『1934년 3월~1936년초 전적지 일람표』, 『1936년 4월~1940년 항일련군 제2군전적지 일람표』(김철수, 2001, 앞의 책, 772~789, 812~829, 969~993쪽).

로부터 만주국 멸망까지 15년 동안 전개된 반만 항일투쟁에서 많은 한인들이 희생되었다.

연변지역 조선족 항일열사는 길림성 열사 총수의 41%, 전 주 열사의 93.8%를 점한다.⁸³⁾ 역사유적지 조사에 의하면 1938년 항일투쟁을 벌이던 중 장렬히 전사한 崔允龜 기념비,⁸⁴⁾ 1939년 6월 항일연군의 천보산전투 기념비,⁸⁵⁾ 내두산(奶斗山) 항일기념비⁸⁶⁾ 등이 남아 있다. 당시 각 부대들이 진행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일제자료와 항일연군 노전사들의 회상 그리고 기타 개인 자료에 기록된 것만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아직 답사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⁸⁷⁾

중국은 만주사변 발발 60주년인 1991년 심양시 인민정부가 ‘9·18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동북지역에서 항일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기념하고 있다. ‘9·18 역사박물관’은 전시기법이 잘 되어 있고 내용 또한 풍부하다. 하지만 한인의 항일투쟁과 관련하여 김일성·최용건·허형식·이홍광 등의 사진만 걸려있고,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제와 투쟁한 이청천·양세봉 등이 빠져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⁸⁸⁾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민족운동 및 공산주의자들과 연대투쟁을 벌임으로써, 민족운동을 국제적인 반일

83) 이러한 숫자는 다른 지역과 다른 민족에 비하면 특이한 현상으로, 이는 곧 조선인들의 ‘抗日像’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최봉룡, 2005, 앞의 논문, 104쪽).

84) 최윤구는 1906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1936년 경 조선혁명 산하의 독립군인 조선혁명군 제2사 사령관을 맡아 크게 활약하였다. 특히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에 합류한 후 1938년 3월경 만주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다(김주용 외 4인, 2009, 앞의 책, 123쪽).

85) 천보산 전적지는 연변대학 민족연구소가 북한의 지원을 받아 1992~3년경에 세웠다. 비문 뒷면에 한글과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1939년 6월 30일 항일연군 제1로군 제2군 4.5사와 제2방면군 9단은 연합하여 일본인 기숙사와 광산수비대를 습격하여 15명을 살상하고 위만자위단의 무장을 회획하였으며, 선광직장설비와 광산사무소를 들부수고 많은 군용물자를 노획하였다.” 북한이 지원하였지만 이 기념비에는 김일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박환, 2001, 앞의 책, 250쪽).

86) 이 기념비는 1961년 5월 1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위원회가 공포하고, 안도현 인민정부가 김일성이 왕청현에 이어 안도에서 활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내두산 항일유적근거지’라고 쓰여 있으나 퇴색하였다(박환, 2001, 앞의 책, 257~258쪽).

87) 김철수, 2001, 앞의 책, 968쪽.

88) 박환, 2001, 앞의 책, 273쪽.

투쟁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조선혁명군에 대한 재조명은 일국의 민족운동 뿐 아니라, 국제적 맥락에서 항일민족운동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및 일본군 침략을 폭로하는 기념관은 약 100여 개소이며, 비교적 큰 기념관은 50여개로 전국 각 성시(省市)에 분포되어 있다.⁸⁹⁾ 기념관의 개인(항전 및 혁명열사)의 생가·활동지·유적지·회의지·관련장소·기념공원·기념비·기념활동 등도 다수이다.⁹⁰⁾ 기념관은 한 국가의 역사와 전통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관을 통해 ‘공공기억’을 형성하고, 민족정신을 배양하며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억을 증강시키는 공간이다.⁹¹⁾ 중국에서 박물관·기념관 건립을 통해 항일투쟁과 승리를 기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자부심을 주는 교육적 의미가 있으며,⁹²⁾ 더 큰 목적은 중국 국민의 애국심 고취에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동안 전국규모와 성급의 많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선정해 왔으며, 2011년 5월에도 길림성 정부는 제4차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⁹³⁾

89) 중국에는 수많은 전쟁기념관이나 전쟁유적이 개설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甲午戰爭博物館」(威海), 「旅順日俄監獄舊址·旅順日俄戰爭陳列館」(旅順),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北京), 「9·18歷史博物館」(瀋陽), 「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罪證陳列館」(哈爾濱),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遭遇同胞紀念館」(南京), 그리고 일본군이 1941년 6월 5일 일으킨 重慶폭격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기념하여 중경시가 건설한 「陪都(重慶)爆擊事件紀念跡」 등을 들 수 있다.

90) 중국정부는 중국 항일전쟁 역사에 대한 기억을 매우 중요시하여 7·7(노구교사변), 9·3(중국항전승리일), 9·18(만주사변), 12·13(남경대학살 기념일) 등을 중요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전국의 각 기념관에서 각종 기념활동을 펼치고 있다. 瀋陽과 南京에서는 9·18, 12·13 기념일에 경보를 울려 시민들로 하여금 이날을 상기하도록 하고 있다(李宗遠, 2005, 「8·15와 중국의 항일전쟁기념관」 『한중일 3국의 8·15기억』, 역사비평사, 150쪽).

91) 王建梁, 2004, 「紀念館：民族的公共記憶」, 華中師範大學教育科學學院 『中國教師』 4期, 4쪽.

92) Rana Mitter, 2003, “Old Ghosts, New Memories : Chin’s Changing War History in the Era of Post-Mao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38 : 1, p.129.

93) 현재 길림성의 68개의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 중, 9개가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이다. 2011년 성급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공표된 곳은 동북사범대학 자연박물관 및 길림성 자연박물관, 유수시 소향전시관(榆樹市小鄉展覽館), 길림성 제1중학 연혁사전시관, 서란시 노후구 참사유적지(舒蘭市老黑溝慘案遺址), 장고봉사건전쟁터전시관(張鼓峰事件戰地展覽館), 쌍요시정가둔박물관(雙遼市鄭家屯博物館), 집안암록강국경철로대교(集安鴨綠江國境鐵路大橋), 침화일본군제7비행단유적지(侵華日軍第七飛行團遺址), 진뢰현박물관(鎮賚縣博物館), 전곽현 광이라사박물관(前郭縣郭爾羅斯博物館), 偽滿皇帝溥儀行宮 등이다(<http://www.wenwuchina.com/>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인의 항일무장투쟁은 물질 기반이 취약하고 기타 민족들과의 연대투쟁이 결여되었고, 민중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결합되지 못한 채 무력에 의존하는 편향성을 띠었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 항일투쟁은 이주 조선인들에게 모든 악조건 속에서 민족독립의식을 일깨우고 장기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조선민족이 불굴의 해방정신을 갖게 한 것이다.⁹⁴⁾ 중국의 항일투쟁사에는 조선족들의 업적이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겨져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정국 열사당안에 기재된 항일열사만 3,126명이 된다. 그 가운데 조선족 항일열사가 3,025명으로 항일열사 총수의 97%를 차지한다. 연변에는 610여 곳에 ‘혁명열사비’가 세워져 선열들을 기리고 있다. 연길시에는 1980년대 초까지 연길 감옥자리가 연변 예술극장으로 바뀌면서, 그곳에 연길감옥의 역사와 노래, 그리고 투옥되었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연길감옥투쟁기념비가 서있다.⁹⁵⁾ 식민지기 동북지역 한인의 항일활동 중에는 그동안 파괴되거나 훼손된 항일 유적지도 많다. 앞으로 조사하여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인물과 역사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의 조사연구가 비교적 미흡한 지역은 북만주 지방과 중국-러시아 국경지대, 백두산 부근의 유적지, 사회주의 운동과 1930년대 좌파계열의 민족운동 유적지, 1930~40년대 초 동북항일연군 유적지 등이다. 생존자의 증언채록이나 관련 자료·유물조사 수집 등 이주한인들의 생활사나 이주사, 일제 침략의 피해유적에 대한 조사·연구와 보존·복원이 필요하다.⁹⁶⁾ 역사유적에 대한 기념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자와 사진자료가 위주인 기념관 시설에 더하여 영상자료나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화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며, 한중양국의 항일공동투쟁 사적지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 한중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⁹⁷⁾ 최근 중국에서 애

news/detail/201105/31/96782.html).

94) 김홍명, 1996, 앞의 논문, 156쪽.

95) 김철수, 2001, 앞의 책, 24쪽.

96) 장세윤, 2004, 앞의 논문, 224, 234쪽.

국주의 교육과 관련하여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열사들에게 추모하도록 유도하는 ‘열사포양’ 방식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⁹⁸⁾ 현대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이주한인 공동체의 삶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재현한다면, 직접 답사하기 어려운 항일유적지나 항일열사들의 순난지 등에 대한 인지도와 친밀감이 높아질 것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1937년부터 1945년까지만 공산당의 항일투쟁사로 규정하고, 1931년 만주사변 발발 후 東北抗日聯軍을 조직하여 6년간 일제에 항거했던 한인과 중국인의 연대투쟁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측이 1930년대 동북지역의 한중간 항일연대투쟁에서 한인의 역할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제의 침략에 맞서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한인과 중국인이 손잡고 벌였던 6년간의 항일투쟁을 중국의 ‘항일투쟁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잘못 평가되었던 역사를 재평가한 좋은 사례이다.

5. 맺음말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한인들이 개척한 조선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항일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동북이주 한인들은 1919년 3·13운동 직후 70여개의 항일운동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동북의 한인 항일부대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만주사변 이후부터 1937년 7·7사변 이후에도 많은 공훈을 세웠다. 한중 양국은 식민지기 한인들의 抗日 역사유적

97) 김철수, 2001, 앞의 책, 853~855쪽.

98) 사이트 운영자가 추모 관련 사이트에 열사에 관한 글과 사진을 올리고 열사의 생애와 업적을 상세하게 소개한 뒤, 다양한 추모방식(종이 태우기, 헌화, 묘지 청소, 祭酒, 향 피우기, 촛불 켜기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러면 네티즌들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입한 후 자신이 선택한 열사와 방식을 클릭해서 추모한다(윤취탁, 2010, 「중국의 애국주의 고취와 ‘烈士褒揚’工作」, 국사편찬위원회 『8·15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들을 발굴·보존하기 위해 협력해왔으며, 중국 각지의 기념관에 보존·기억되고 있다.⁹⁹⁾

근대 중국동북으로의 한인 이주 연구가 재조명되어 왔지만, 앞으로 조선족 공동체의 민족 자부심과 자각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족의 역사교육에서 항일투쟁의 위상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역사유적지를 올바르게 기념할 필요가 있다. 한인 이민사와 항일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념과 지역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다.¹⁰⁰⁾ 중국과 국제적 연대투쟁을 벌인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을 중국인 학자들이 중국의 영도를 받은 국제지대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 환경의 특수성을 분석하지 않는 소수민족 차별인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또한 만주사변 이후 남만의 조선혁명군과 북만의 한국독립군 모두 많은 전과가 있지만, 해방후 한국으로 간 한국독립군만 높이 평가하고 조선혁명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좌파계열의 민족운동 유적지뿐만 아니라, 친일단체를 포함하여 민족문제의 모순과 갈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역사유적만 선택하여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은 민족문제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식민지기 중국동북지역 조선인 공동체가 처했던 민족문제의 이중성, 남북한의 서로 다른 항일유적지 기억과 기념의 차이가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공동체에 미친 단절과 긴장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조사가 보완되

99) 上海와 杭州·長沙·重慶의 임시정부청사 유적, 南京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회의개최지, 武漢의 조선의용대 창설 장소,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 이후 조선민족 항일애국단체와 애국자들이 廣州로 집결하여 중국 동지들과 뭉쳐 중국 혁명을 추진시킨 기념으로 廣州起義烈士陵 園內에 설치되어 있는 ‘中朝인민혈의정’,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桂林 등의 역사유적을 발굴·연구·보존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우호협력이 추진되어 왔다.

100) 연변지역은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이 영도한 항일투쟁 사적에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1910~20년대 민족주의 계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관련 사적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림 육문중학 김일성 동상은 중국 동북지역 朝僑(북한국적의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朝僑들은 1년에 한번씩 김일성이 다녔던 육문중학에 모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갖는다고 한다(『조선일보』, 2002년 3월 27일자).

어야 할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식민지기 항일투쟁을 전개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후예로서, 중화문화와 조선민족문화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수한 민족공동체이다. 식민지기 한인이 중국인과 함께 협력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사유적을 보존·기념하는 것은, 다민족국가 중국이 지향하는 ‘다원문화’의 보존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과 한중우호관계에도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¹⁰¹⁾ 앞으로 훼손된 항일유적지를 복원하여 기념하는 활동이 강화되고 항일투쟁 관련 조선족의 역사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중국 내에서의 역사적 위상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 2011년 10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1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30일

101)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과 복원, 기념물의 설치 등은 애국주의 고양뿐만 아니라 국내의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김철수, 2001, 앞의 책).

참고문헌

- 강룡권, 2000, 『동북항일운동유적답사기』, 연변인민출판사.
- 고영일 등저, 2002,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 : 1910~1952년 조선민족통사』, 백암.
- 고영일, 2002, 『中國朝鮮史民族史研究』, 학연문화사(1986, 연변교육출판사).
- 국가보훈처, 2003,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보훈처.
- 權 立, 1987, 「試論朝鮮族人民對抗戰的貢獻」 『朝鮮族研究論叢』1.
- 김 계르만, 2005, 『한인 이주의 역사』, 박영사.
- 김기훈, 2008, 「만주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석정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06, 「한인의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제76호.
- 김동화, 1991, 「동북 조선족에 대한 민족정책과 그 역사적 평가」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사』, 도서출판 느티나무.
- 김상철·장재혁 지음, 2003, 『연변과 조선족-역사와 현황』, 백산서당.
- 김 영, 2004, 『근대 만주 벼농사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 _____, 2009, 「중국 요녕성의 벼농사와 조선인 이민사회, 1875~1931」 『한국학연구』 2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김원석, 1992, 「中國朝鮮族의 遷入史에 대한 研究」 『동아연구』 12.
- 김재승, 2002, 『만주벌의 이름없는 전사들』, 혜안.
- 김중국, 1996, 『中國 朝鮮族史 研究 1』,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주용, 2005, 「1910~1920년대 남만주 친일조선인 단체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4집.
- _____, 2011, 「만주지역 한인 집단이주와 강제성」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 「1930년대 간도지역 한인의 집단이주와 삶」 『한국학연구』21집.
- 김주용·박환·조재곤·한시준·한철호, 2009, 『국외항일유적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춘신, 2006, 「연변지역조선족교육의 형성 발전과 금후전망」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1998, 「한인의 해외이주와 그 정착과정-북간도지역 한인사회의 형성과 토지 소유권 문제」 『전주사학』6.
- _____, 2009, 『중국조선족사료전집-력사편 이주사』, 연변인민출판사.
- _____, 2009, 『중국조선족통사』상·중·하, 연변인민출판사.
- _____, 2006, 「중국 조선족사 연구현황과 과제」 『중앙사론』24.
- 김태국, 1998, 「한인의 해외이주와 그 정착과정, 중국 조선족 역사 상한선 문제」 『전

주사학』6.

- _____, 1996, 「중국에서의 조선족 역사 연구」 『동북아연구』2-1, 조선대.
- 김호웅, 2010,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29.
- 김홍명, 1996, 「東北三省 항일운동의 성장」 『동북아연구』2-1, 조선대.
- 류연산, 1992, 「중국에 동화되는 조선족문제의 심각성」 『역사비평』21호.
- 명동학교 10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08,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박경숙, 2009, 「식민지시기 조선의 인구동태와 구조」 『한국인구학』제32권.
- 박문일, 1996, 『中國 朝鮮族史 研究 2』,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민영, 2006, 「만주국시기 일제의 延邊地域 韓人배정책과 실상」 『연변 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 박선영, 2008,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선족 역사적 정체성 만들기」 『동북공정과 한국 학계의 대응논리』, 고구려발해학회.
- 박창욱, 1991, 「조선족의 중국 이주사 연구」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 박 환, 2003,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가의 제유형과 그 특성」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 _____, 2001,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 답사기』, 국학자료원.
- 백산학회 편, 2000, 『中國內 朝鮮人の 生活像 論攷』, 백산자료원.
- 석원화 편저, 2000, 『중국공산당원조조선독립운동기사, 1921~1945』, 중국사회과학출판사.
-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31집.
- 손춘일, 2001, 「만주사변 전후 재만조선인 문제와 그들의 곤경」 『정신문화연구』제24권 2호.
- 송 영, 1956, 『백두산은 어데서나 보인다』, 평양: 조선민주청년사.
- 송한용, 2011, 「장학량정권의 對韓人政策-만보산 사건의 遠因을 찾아서」 『만주연구』제11집, 만주학회.
- 신일철, 1988, 「中國의 “朝鮮族抗日烈士傳”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2집.
- 신주백, 2008, 「분단과 만주의 기억」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안병직, 2007, 「한국사회에서의 ‘기억’과 ‘역사」, 역사학회, 『역사학보』193.
- 야마무로 신이치·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소명출판.
- 楊昭全, 1996, 『중국에 있어서의 한국독립운동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염인호, 2008,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1945.8~1950.말」 『한국사연구』140.
- 王建梁, 2004, 「紀念館: 民族的公共記憶」, 華中師範大學教育科學學院 『中國教師』4期.
- 禹鍾烈, 2009, 『朝鮮族-遼寧少數民族叢書』, 遼寧民族出版社.

- 유병호, 2002, 「요녕민중자위군에 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1 만주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한국학자료원.
-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윤병석, 2009, 「한인(조선인)의 간도 이주 개척과 『간도개척사』」, 『白山學報』79호.
- _____, 2003, 『간도역사의 연구』, 국학자료원.
- _____, 2004, 『한국 독립운동의 해외사적 탐방기』 지식산업사.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 尹 豪, 1993, 「中國朝鮮族의 人口動向」, 『韓國人口學會誌』第16卷 第1號.
- 윤희탁, 2001, 「만주국의 2등국(공)민, 그 실상과 허상」, 『역사학보』169집.
- 임계순, 2003, 「우리에게 다가온 조선족은 누구인가」, 현암사.
- 임희준, 1996, 『중국조선민족 항일투쟁 유적지』, 연변대학출판사.
- 장세운, 2005, 「중국조선족 동포의 현황과 전망」,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 _____, 2004,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유적지의 현황과 당면과제」, 『북방사논총』2호,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1989, 「한국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3집, 독립기념관.
- 전해중, 1993, 「한족의 만주(특히 간도)이주에 대하여-19세기 중엽까지의 역사와 연구의 문제점」, 『동아연구』26, 서강대 동아연구소.
- 정성미, 2011, 「19세기 조선인의 만주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정안기, 2011, 「만주국이 조선인의 만주이민과 朝滿拓植(주)」, 『동북아역사논총』31호, 동북아역사재단.
- 조동걸, 1995, 『독립군의 길따라 대륙을 가다』 지식산업사.
- 조룡호·박문일 주필, 1999, 『21세기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상)』, 백산자료원.
- 중국 연변역사학회 기획·주성화 엮음·김춘선 감수, 2009, 『중국조선인 이주 사진첩 1』, 한국학술정보.
- 채영국, 2006, 「연변(북간도)지역 독립운동기지와 1920년대 한인사회의 변천」, 『연변조선족 사회의 과거와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 최봉룡, 2002,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항일작전-양세봉 사령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31, 한국학자료원.
- _____, 2005, 「기억과 해석의 의미: 만주국과 조선족」, 『만주연구』2집.
- 최홍일, 2004, 「동북항일연군의 서정(西征)과 한인대원의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41.
- 鶴鳴雪嶺, 1997, 『中國朝鮮族の研究』, 大阪:關西大學出版社.
- 한상도, 2000, 『한국독립운동과 국제환경: 1930-40년대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한울.

- 한석정, 1993, 「만주국과 조선과의 관계」 『아시아문화』제19호.
- 한석정 편, 2008,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 _____, 2011,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사회적 지위」 『동북아역사논총』31호, 동북아역사재단.
- 항일무장투쟁사적지조사단, 1960, 『항일무장투쟁 전적지를 찾아서』,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허수동, 2010, 「關於‘間島慘變’研究與紀念問題」 『만주연구』10집.
- 홍종필, 1993, 「만주 조선인 이민수전 개척소고」 『명지사론』5.
- 황민호, 2002, 「남만지역 중국공산당의 항일무장투쟁과 한인대원」,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편, 『한국민족운동사연구』31 만주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한국학자료원.
- _____, 1995, 「1920년대 후반 在滿韓人에 대한 中國當局의 政策과 韓人社會의 對應」 『한국사연구』90.
- 黃有福, 2009, 「중국조선족의 문화공동체」, 해외한민족연구소, 『한반도 제3의 기회』, 한국화산문화사.

■ Abstract ■

Reexamining the Korean Migration History Research in Northeast China and Memories/Commemoration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Kim, Jeong-Hyun

Wit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k.a. South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92 and the subsequent surge of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history of the Koreans migrated to the northeast region of China (i.e. Manchuria) has drawn more interest and research efforts. Since then until now, numerous publications have been made on the history of modern Manchuria. The Korean migration history to northeast China has been often researched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economic reasons, but recently more diverse thoughts and perspectives are brought in the discussion of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hases of the modern Korean migration to the region. In 2011, commemorating the 80th year of the Manchurian Incident(which happened on September 18, 1931), many international seminars and conferences are being held, where a wide range of topics related to *Manchukuo*(lit.Manchustate) and the Incident are being discussed. In these academic meetings, the significance of northeast China is being discussed from a variety of angles, and the lives of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region and their historical memories of the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are being reexamined.

Koreans started to move into the northeast region of modern China for economic reasons, but the region was used as the bas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the Korean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era. However, because of the recent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increasing

interactions with South Korea, more ethnic Koreans in the region—called *Joseon-jok*(lit. Joseon people)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Korea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 are moving out of their ethnic community, bringing the decline of the Korean community in Manchuria. The *Joseon-jok* have been maintaining their strong cultural and ethnic identity as Koreans in the multi-ethnic society of China, but as generations pass, their ethnic affinity with Korea can fade along with their Korean identity.

This paper will look into existing studies and characterizations of the Korean migration to northeast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diaspora” based on the most recent findings on the colonial-era Korean migration to the region. The particular focus will be on how the historical sites related to colonial-era Koreans’ anti-Japanese resistance activities are being preserved and commemorated as places of collective memories for the *Joseon-jok* to preserve their Korean ethnic identity. Memory is present-oriented rather than past-oriented and is re-configu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esent;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the group’s interest and attitude towards their shared memories from their collective identity. By examining existing studies and field research reports on Koreans’ anti-Japanese resistance activities in northeast China, including the most recent ones, the paper will investigate whether the lives of the Korean “diasporans” in Northeast China and the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are put in their rightful place in history and how the related historical sites are preserved and commemorated. At the present, neither South Korean scholars nor *Joseon-jok* scholars who are studying the Korean anti-Japanese resistance movement can fully access to the related historical sites and effectively preserve them. More joint research and field expe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by Korean and Chinese scholars, invigorating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Joseon-jok*, so that it can help strengthen the *Joseon-jok*’s ethnic identity as Korean “diasporans” and elevate their historical stature in northeast China.